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월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교육 및 평가

- ▶ 효과적인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는 빠르게 진화하는 거버넌스 환경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함
- ▶ 이사회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이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접근법은 없으며, 교육방식과 내용, 전달방법은 이사회와 회사의 사업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사회 평가(범위, 방법론, 내용 포함) 또한 회사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 ▶ 본 보고서는 이사회가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교육과 이사회 평가 관행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2022년 7월 기업거버넌스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 교육 주제, 이사회 평가절차와 관련 공시를 다룬 조사 결과를 제시함
- ▶ 주요 조사결과:
 -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ies)*,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로, 다양한규모와 업종의 154개 상장기업을 대표함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기업 법무 및 주주관계 업무를 총괄 하는 고위직
 - 대형 상장법인의 15%, 중형 상장법인의 27%는 이사회 교육을 위해 정기 이사회 회의 이외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약 40%, 중형 상장법인의 약 35%는 이사회 성과 평가에 동료/상호 평가 및/혹은 자가평가가 포함된다고 응답
 - 중형 상장법인의 37%, 대형 상장법인의 69%는 이사회 평가 절차의 일부로 인터뷰를 활용한다고 응답
 - 중형 상장법인의 45%, 대형 상장법인의 65%는 이사회 의장이 평가 주체라고 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76%, 중형 상장법인의 69%는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성과를 평가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사회가 매우 효과적인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78%, 중형 상장법인의 71%는 이사회 평가 과정과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내 위원회

- ▶ 사이버 보안, 인사관리, 기후변화 등 ESG 산하 주제가 다양한 이사회 안건으로 떠오르며 회자됨에 따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많은 이사회가 본인들의 감독 역할 및 효율성을 유지·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 ▶ 이사회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책임 및 우선순위를 따라가고 있는지, 신규위원회 설립, 위원회 헌장 개정, 이사회 및 위원회 감독임무 재분배, 위원회 회의방식(회의 빈도 및 시간)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함
- ▶ 본 보고서는 약 180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5월 조사 결과를 제시함
- ▶ 본 서베이 목적은 현 이사회 구조, 구성 및 관련 사례를 이해하고 지난 1년 간의 진전 경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 ▶ 응답자의 55%가 이사회가 1개 이상의 위원회의 감독 책임을 확대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는 이사회가 ESG를 특정 위원회에 개별 주제로 선정하도록 하거나 지명위원회 또는 거버넌스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ESG를 포괄하도록 전달하여 감독 책임을 확대했다고 응답



2022년 3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회의

- ▶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 및 안전 상의 문제로 이동과 대면 모임이 제한되어 많은 기업들의 핵심 경영 요소에 변화가 있었음
- ▶ 이런 공간상의 제약이 초래한 상황이 예상 밖의 사건이었으나, 이는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오랜 이사회 관행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 및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 본 보고서는 팬데믹이 주요 이사회 회의에 유발한 영구적인 변화와 150개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2월 서베이 조사 결과를 제시함
- ▶ 본 서베이 목적은 팬데믹으로 인해 이사회 회의방식(회의 빈도 및 시간), 가상 회의에 대한 접근법, 참석, 회의자료 및 안건 등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임
-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응답자의 55%가 팬데믹이 전체적인 이사회 절차 및 관행에 중간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One year later

- 본 보고서는 기 2020년 9월에 발행된 본 시리즈 초판에서 언급했던 주제를 재검토함으로써 구조적 인종차별 및 불평등을 둘러싼 지난 해 사건에 대한 기업과 이사회들의 진척 경과를 탐구함
- 특히 기업의 공시, 회의 안건 및 조치와 지난 1년 간 경영진, 이사회가 DEI 관련 주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이사회 채용 및 교육, 경영진 보수 등 DEI 관련 주제도 추가로 검토함
- 조사 결과는 120개 이상의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0월 서베이에 근거함
- 초판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지난 1년 간 본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발전했으며 행동 및 진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관행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상장법인은 2020년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여 이사회에 더 많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전략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함
- 주요 조사결과:
 - 2020년 상장법인의 64%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88%가 DEI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했다고 응답
 - 2020년 상장법인의 12%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3%가 DEI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10월판

공급망 전략: 전통적인 기업 균형 변화

- ▶ 오늘날의 린(lean) 경영* 및 JIT(Just In Time, 적시생산시스템) 경영 접근법 시대에는 많은 기업이 비용 및 효율성에 집중하는 공급망 전략을 채택함

*구매, 생산, 재고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손실요소를 줄여 생산성 개선을 추구하는 차세대 경영기법

- ▶ 최저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공급망 공식을 통해 주요 고객에게 합의된 가격으로 적시에 납품이 가능하다면, 생산설비와 공급업체는 거의 모든 지역에 위치할 수 있음
- ▶ 파급이 크고 발생 빈도가 낮은(low-probability, high-impact) 사건들이 발생하는 최근 몇 년, 지역 및 국경을 폐쇄하고 인프라를 제약하는 글로벌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전세계 공급망 변화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
- ▶ 이런 폐쇄 및 갈등으로 공급망 운영에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과 최종 소비자 시장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위치한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음
- ▶ 지역화된 소싱(sourcing) 접근법은 장거리 운송 등 관련 리스크를 감소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할 수 있음
- ▶ 목차:
 - 의사결정 사항
 - 디지털 솔루션 해법
 - 공급망에 디지털 솔루션 활용
 -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

다운로드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US
Supply chain strategies for many companies, the traditional balance is shifting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2022.11.16 (수) 금융감독원

상장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결과

- ▶ 배출권을 할당받은 주요 상장법인의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1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 배출부채는 8,357억원으로 전기대비 각각 42.5%, 17.8% 증가
-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21.4월) 마련한 「온실가스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 활용에 따라 상장법인의 재무공시(주석)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
- ▶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무공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
- ▶ K-GAAP 주석 요구사항(①~④)을 모두 공시한 상장법인은 12사(전기 6사)이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 수도 전기 대비 증가
- ▶ 주석공시 현황

구분 (주석공시항목)	20년 공시	21년 공시	증감
① 무상할당수량	12사	25사	+13사
② 보유배출권수량	11사	23사	+12사
③ 배출권자산·부채 증감내역	10사	18사	+8사
④ 배출량추정치	13사	21사	+8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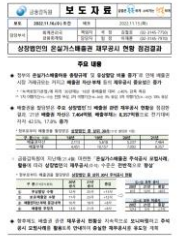


① ~ ④ 모두 공시		
20년	21년	증감
6사	12사	+6사
① ~ ④ 모두 미공시		
20년	21년	증감
12사	5사	△7사

*정보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 주석공시 현황

- ▶ 향후에도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토록 안내하여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며, 도입을 준비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관련 유의사항을 발굴·안내할 예정

다운로드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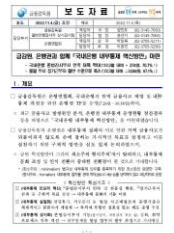
II. 주요 규제 동향

2022.11.03 (목) 금융감독원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7.26일~10.18일)하여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함
-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금번 혁신방안이 내부통제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주요 내용
가.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1.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①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 15명 이상 (대형은행 기준) 확보 ② 부서 내 전문인력 20% 이상 (주요 6개 분야 포함 필수) 확보 ※ '27년말(인력비율), '25년말(전문성 제고)까지 단계적 추진
2.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 강화	① 선임시 자격요건에 관련업무(준법·감사·법무 등) 경력 추가 ※ '25.1.1일 이후 선임 시부터 시행
3.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①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하로 관리 (현재 시중 은행은 11.4% 수준) ②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 마련 - 장기근무 승인권자 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임원으로 상향 - 장기근무 승인요건 으로 1)불가피성, 2)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채무·투자현황 확인 등) 심사 의무화 ※ '25년말(관리비율)까지 이행

나.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1. 명령휴가 제도	① 명령휴가 대상 분·지점 고위험 직무 확대 , 장기근무자 포함 ② 위험직무자 등 강제 명령휴가 의무화 (일반 휴가 등 대체 불가) ※ '23.6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2. 직무분리 제도	① 직무분리 대상 고위험 거래 범위 확대·구체화 ②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 '23.6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II. 주요 규제 동향

2022.11.03 (목) 금융감독원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계속)

구분	주요 내용
3. 내부고발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부고발 익명성 강화(내규상 실명신고 문구 삭제) ② 고발유형별 보상기준 다양화 ③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의무화
4.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점 이외 본점 부서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② 사고예방대책의 직무별·직급별 역할과 책임(R&R) 구체화 ③ 자점감사·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과 연계 <p>※ '23.7.1일(직무분석 필요)부터 시행</p>
다.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1.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밀번호를 대체할 소유·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확대 <p>※ '23.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p>
2.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구조조정 관련 공동자금 채권단 검증 의무화
3.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안→날인→지급시스템간 연계 체계 구축 ② 단계별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금액, 결제번호, 수신인 등) <p>※ '23.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p>
4.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기 기안문서 전산 등록·문서번호 자동 부여 의무화 ② 수기 접수문서 활용 시 검증 체계 구축 <p>※ '23.7.1일(전산구축 필요)부터 시행</p>
라.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1.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시감시 대상 본점까지 포함, 중요 이상지표 보고·처리·사후관리 체계 강화
2.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점감사 결과보고 체계화, 자점감사 부실징후 영업점 현장점검 절차 마련 등

II. 주요 규제 동향

2022.11.03 (목) 금융감독원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

➢ '19년 이후 상장폐지기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임
- 상장폐지 직전 대규모 당기순손실 확대로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빈번한 CB·BW*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이 수반됨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 또한, 상장폐지기업은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증가

➢ '19년 이후 상장폐지기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상장폐지 제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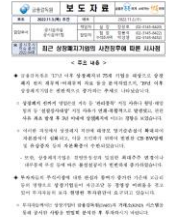
1. 형식요건	'단독 상장폐지사유'와 '관리종목지정 후 상장폐지사유'
2.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적 또는 개별적 사유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상장폐지기업 연도·사유별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합계
집중분석대상	12	15	4	15	20	9	75
형식요건	9	14	3	12	14	7	59
감사의견 비적정	5	13	1	10	9	6	44
정기보고서	-	-	1	2	2	-	5
부도·파산 확정	1	1	1	-	3	1	7
자본잠식	2	-	-	-	-	-	2
손익약화	1	-	-	-	-	-	1
실질심사*	3	1	1	3	6	2	16
횡령·배임 혐의	1	1	-	1	3	1	7
회계위반	2	-	1	-	1	-	4
불성실공시	-	-	-	1	2	-	3
경영권변동	-	-	-	1	-	1	2

* 실질심사: 미해소된 다수의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병존하는 경우 그 중 최초 발생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2022.11.03 (목) 금융감독원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 (계속)

➤ 상장폐지기업의 특징

재무적 특성	
당기손익·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 점차 확대 결손누적·확대로 인해 자본잠식 증가
현금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재무활동 조달 현금유입액(+) → 투자활동 및 영업활동 현금유출액(-) 이용
자금조달 증권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주식관련사채(CB·BW 등) 및 주식(유상증자)에 비해 미미한 일반사채 발행
자금조달 발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모/소액 공모 방식 주로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공모방식의 발행은 미미함
비재무적 특성	
최대주주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변경 공시(거래소)가 빈번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업의 경영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
불성실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이 빈번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인력·조직(의식·태도·전문성)과 내부통제 부실 등에 기인

- 상장폐지기업(75사, 5년 연평균)은 상장기업(2,229사, '21년 1년)에 비해 앞서 분석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이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상장폐지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 최대주주변경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각각 4.4배(2.05/0.47), 5.4배(0.56/0.10), 9.2배(0.53/0.06)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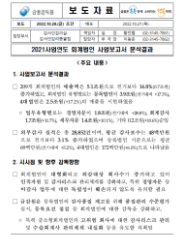
II. 주요 규제 동향

2022.10.28 (금) 금융감독원

2021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회계법인이 대형화되고 외부감사법 대상 회사수가 증가하고 있어 인적자원 및 감사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경영자문 등 비감사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은 등록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등록요건 점검 등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형회계법인의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사리스크 관리 및 수습회계사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유도할 계획임
- 사업보고서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회계법인 대형화 추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회계법인간 합병분할, 인력 증원으로 회계법인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 회계법인: 17개(FY19) → 19개(FY20) → 20개(FY21) 소속 회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감사업무 배정시 인적자원의 적격성 심사 등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2. 감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증가*하였으나, 등록법인의 감사실적 비중**은 전기보다 감소 * 전체 외부감사 실적: 27,942(FY19) → 26,969(FY20) → 28,852(FY21) ** 등록법인 외부감사(회사수 기준) 비중: 59.7%(FY19) → 61.3%(FY20) → 60.2%(FY21) 일반법인(감사비중 39.8%)도 감사품질관리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3. 비감사 업무에 대한 독립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당기 경영자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회계감사 매출비중을 상회** * 경영자문 매출액: 1조 3,137억원(FY19) → 1조 4,362억원(FY20) → 1조 8,494억원(FY21) ** 전체회계법인 경영자문 매출비중: 36.3%, 회계감사 매출비중: 32.5%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입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독립성 훼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4.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감사인 선임 기초자료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를 보다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공시할 필요 ※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허위 기재,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부실기재시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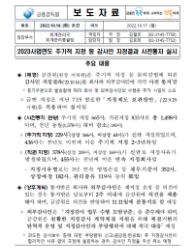
II. 주요 규제 동향

2022.10.18 (화) 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음
- ▶ 본통지(11.11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2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함
- ▶ 지정제도 개요

다운로드



주기적 지정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 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직권 지정	감리결과와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 ▶ 지난 7.15.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22.9.29. 개정된 외부감사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 회사 및 감사인군 등을 적용하였음
- ▶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기업·감사인군 분류기준 개선	• 지정군을 5개 → 4개로 조정하고 회사군 '가'군 범위를 확대(5조이상 → 2조이상), 감사인군은 분류기준을 강화* *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 상향, 손해배상능력을 보험금으로 변경 등
2. 감사품질의 지정 연계	• 회계사수 기반의 감사인 점수에 감사인감리 결과와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반영
3. 지정방법 개선	• 동일군 내 재지정 도입 및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사유 (3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의 하향재지정 제한* *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등은 하향재지정제 유지
4. 일반 회계법인 우선 지정	• 일반 회계법인(미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지정신청할 경우 비상장사 2사를 우선 지정
5. 시행시기	• 품질관리인력요건*(감사인군 분류기준)과 감사인감리 결과반영** 등 유예 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22.9.28.) 후 즉시 시행 * '나'군의 140% 이상과 '다'군의 120%이상 요건을 6개월 유예 ** 규정개정 이후 감사인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반영

- ▶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III. 국내외 뉴스



기업지배구조

- 금융지주 회장 도덕성 강조한 금감원장...지배구조 메스 대나 [뉴시스]
- "미국주식엔 있고 한국주식에는 없는 것" [비즈니스워치]
- 11월부터 기업지배구조 우수 기업 선별해 '코스닥 우량기업 세그먼트 지수' 발표 [한겨레]
- 콜마홀딩스, 전 임직원에게 ESG 교육 강화... "ESG 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서울경제]
- "세계13위 한국증시, 내적으로 미성숙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발목" [문화일보]
- 제약·바이오기업, 'ESG 경영' 없인 잭팟도 없다? [청년외사]



이사회·감사위원회

-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금융지주 경영진 이사회, 공정한 절차로 구성해야" [한겨레]
- 글로벌 이사회 다양성 추적 보고서... '이사회 다양성 확대에 따라 포용성 요구 늘어' [뉴스와이어]
- 이사회 참여 100%... CE-CFO의 '선두주자' 그룹 [더벨]
- 이복현 금융사 이사회 물갈이 온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 물갈이 [조선비즈]
- 이사회 설문조사결과 "기업 경영진 90%, 비즈니스 성장 전략에 디지털 기술 있다" [헬로티]
- 감사위원회포럼, 30일 '가상자산 고려사항' 정기포럼 [한국세정신문]



회계투명성

-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재지정 55% 감소 [뉴시스]
- 국내 거래소 최초 가상자산 내역 공개...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 [연합뉴스]
- 상장폐지 기업 사전 징후 살펴보니... 회계·경영투명성 관련 사유 비중 증가 [머니S]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 지원방안 마련... 주식공시 의무화, 정보 투명성 제고 필요성 [조선비즈]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경에세이] 홍중성 한국딜로이트그룹 총괄대표, 다양성이 경쟁력인 시대 [한경 오피니언]
- 딜로이트 안진, 스펀딩과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 고도화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 [세계일보]
- 딜로이트 "메타버스가 아시아 경제에 혁신적 영향 미칠 것" [한국경제TV]
-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 아시아와 디커플링? "반도체는 어렵다" [이코노미조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2 기후행동 점검 국문 리포트 발표 [아주경제]
- "신기술은 수단일 뿐 목표 아냐, 고객경험 명확해야" 김태환 딜로이트 디지털 리더 [조선비즈]

III. 국내외 뉴스



부정행위방지

- 금융감독원, 증권사·건설사 부도 등 루머 확산..."시장교란행위 적발시 수사기관 이첩 예정" [더퍼블릭]
 - 연구개발 부정행위 제재 금액 1490억원... 617억원 못 받았다 [스카이데일리]
 - 바이오기업 부정행위 등 논란에도 10년간 상장폐지 無 [디지털타임스]
 - 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부정거래 행위 규제 [ZD넷코리아]
-



규제 동향

- ESG 공시 트렌드, 기업 자발적에서 글로벌 규제 의무화 추세 [산업일보]
 - ESG 관련 행정부 동향 - 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 위한 정책방향 제시 [법률신문]
 - 美, '국가 안보 직결'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더구루]
 - "글로벌 수입규제 급격히 증가...철강 화학 등 소재 산업에 집중" [머니투데이]
 - 미국·인도·중국 수입규제 증가... "국가별 대응 전략 필요" [국민일보]
 - 화장품 위해평가 '제도 탓' 아닌 '기업 책임'...업계 안전 선언 필요 [씨앤씨뉴스]
 - 금융研 "내년 은행 대출증가율 4%·2.9%p ↓ ...수익성 정체·조달 우려" [연합인포맥스]
-



M&A

- 경기침체에도 글로벌 바이오 M&A 증가... 9월 3건→10월 6건 [머니S]
- 골드만삭스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M&A 둔화' [연합인포맥스]
- 돈도 없고 딜도 없다...보릿고개 지나는 M&A 시장 [머니투데이]
- M&A에도 보험 든다?... "거래 끝나고 문제 생기면 보상" [한경코리아마켓]
- "유상증자부터 M&A까지"... 생명보험업계, 자회사형 GA 몸집 키우기 총력전 [뉴스컴퍼니]
- 매각설 도는 증권업계...M&A 현실화 가능성 주목 [뉴데일리]
- "CEO 10명 중 4명, 향후 1년 내 M&A 추진할 예정" [서울파이낸스]

IV. 주요 행사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2 웨비나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14:00 ~ 16:00
장소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참가신청하기 (클릭 시 이동)

신청하기

QR 코드



관련 보도자료

▶ 웨비나 시간표 안내


시간	내용	연사
오후 1:55~2:00 (05분)	참석자 안내	사회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오후 2:00~2:05 (05분)	인사말씀	Audit & Assurance 본부 장수재 본부장
오후 2:05~2:20 (15분)	세션 1.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동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오후 2:20~2:55 (35분)	세션 2. 현행 회계감독기구에 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오후 2:55~3:05 (10분)	Break Time	
오후 3:05~3:25 (20분)	세션 3. 자금사고방지 현황과 대응방향	Transformation & Analytics 이승영 수석위원
오후 3:25~3:45 (20분)	세션 4.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리스크자문본부 채수완 이사
오후 3:45~4:00 (15분)	Q&A / Closing	세션 강연자

- ▶ 이번 웨비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아젠다로 구성, 총 4개의 세션을 선보일 계획
- ▶ 웨비나 접속 경로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설립되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기업지배기구 선진화 전반에 관한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통찰력이 담긴 전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Is your board ESG ready?」 웹 세미나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2월 8일 3:00 ~ 3:50AM KST	신청하기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QR 코드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ureen Bujno 매니징 디렉터 (Audit & Assurance 거버넌스 리더, 딜로이트 미국) Evan Harvey 매니징 디렉터 (Audit & Assurance ESG 및 지속가능성, 딜로이트 미국) Jon Raphael National 매니징 파트너 (지속가능성, Transformation 및 Assurance, 딜로이트 미국)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웨비나에서는 2022년 이사회 안건 중 핵심 주제인 ESG에 논의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과 ESG 전략의 연계방법 ESG에 대한 이사회 의 감독 범위를 정의하는 방법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방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 정기주총 운영실무 및 공시제도 온라인 설명회」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2월 7일 ~ 2022년 12월 9일 (3일간)	신청하기												
장소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신청내역 조회 → "강의보기")	QR 코드												
패널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시</th> <th>주제</th> <th>강사</th> </tr> </thead> <tbody> <tr> <td>1교시(60분)</td> <td>결산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사항 해설</td> <td>한국거래소 실무자</td> </tr> <tr> <td>2교시(60분)</td> <td>임원 선임관련 지분공시제도 해설</td> <td>금융감독원 실무자</td> </tr> <tr> <td>3교시(120분)</td> <td>2023 정기주주총회 개최 실무해설</td> <td>상장회사협의회 실무자</td> </tr> </tbody> </table>	교시	주제	강사	1교시(60분)	결산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사항 해설	한국거래소 실무자	2교시(60분)	임원 선임관련 지분공시제도 해설	금융감독원 실무자	3교시(120분)	2023 정기주주총회 개최 실무해설	상장회사협의회 실무자	
	교시	주제	강사											
	1교시(60분)	결산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사항 해설	한국거래소 실무자											
	2교시(60분)	임원 선임관련 지분공시제도 해설	금융감독원 실무자											
3교시(120분)	2023 정기주주총회 개최 실무해설	상장회사협의회 실무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결산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원사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 지원 결산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사항의 숙지 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2023 정기주총 운영실무 및 공시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Consultant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hyunjihwan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